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1-5)

본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헛되다’ 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애쓰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는 자’ 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절의 ‘집’은 한 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우고 부흥시키는 영적지도자들의 노고와 수고의 땀이 아닌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 손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2.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1절).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최고 훈장을 받고 감사하며 자신은 의무, 자유, 조국을 위해 살았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 사업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2절). 일어나고 눕는 것은 하루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합성어이며, ‘수고의 떡’은 복수형으로 수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많은 노동을 하여도 추수의 기쁨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목회나 선교나 전도하는 일은 보람되고, 세상 일은 헛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책망한 것입니다. 혼자 애써봐야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4.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헛되다고 하던 시인은 3절에서 갑자기 ‘보라’ 하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한 후 5절에서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세운 자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돈과 명예와 욕심으로 세우려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업도 세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Psalm 127:1-5)

Psalm 127 says, "Unless the Lord helps us, everything is in vain." Verses 1-2 repeat this phrase, "in vain," three times. It emphasizes that without God's help, the very fact that they strive to attain their object of desire is expressed by "how foolish they are." Therefore, every "builder" must rely on the Lord and receive His grace.

1. It is the Lord who builds the church

The "house" in verse 1 indicates the temple, though it can sometimes mean family. Although spiritual leaders work to build and revive the church, their travail and sweat are in vain. Only the Lord can build the church. According to the book of Acts, the number of people who believed by the hand of the Lord increased more and more, which is ultimately a mystery. Therefore, unless the Lord blesses us, we will build the church in vain.

2. It is the Lord who builds the natio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v. 1).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depends on the hand of the Lord. The Lord built the house of Israel and watched over its people. Just as we pray for our church, we also need to pray for our country. When General Douglas MacArthur was conferred with the very best decoration that West Point Military Academy had to offer, he made this formal reply, "I have been living for my duty, freedom, and homeland. I fully give thanks to God for His help."

3. It is the Lord who runs a business

"In vain, you rise up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v. 2). 'Rising early' and 'staying up late' are compound words which indicate all of our daily activities, and 'toiling for food to eat' is a multiple word expression meaning to make lots of effort. Laboring hard without God's help will lead us not to enjoy the harvest. Therefore, the phrase, 'in vain,' does not emphasize the thought that pastoral duty, missionary work, and evangelism are useful while worldly work is not, but rather the entire attitude that one might exert oneself to do anything without God is unacceptable. It means that unless God helps him, one makes these efforts in vain.

4. It is the Lord who builds a home

The psalmist who had been saying, 'in vain,' up to this point, suddenly says, "Look," in verse 3. So after shifting the discussion in a new direction, he says in verse 5, "Blessed is the man whose quiver is full of arrows." This is the same thing as saying, "Blessed is the man who builds a home." Here is a man who has built his life and who has succeeded in it. However,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man who has built this home is none other than the Lord. We cannot control our family and our children as we want. Many parents of this world have tried to build up their children with money, honor, and avarice, but have eventually failed.

My beloved Christians!

Unless the Lord is with us, we cannot build our family, church, country, and business. Every day, as we move along in company with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succeed in building our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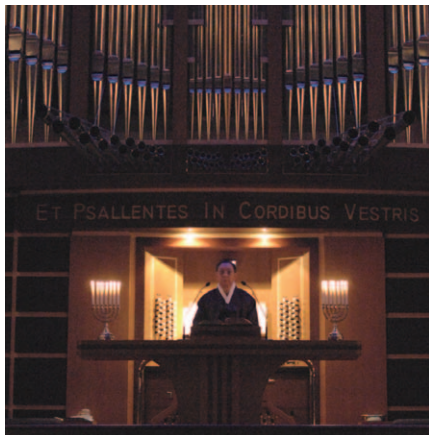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송구영신(送舊迎新) 예배

## 2010년 1월 1일 0시 정각 - 본당에서

2009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10년을 맞이하는 첫 시간을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10년 1월1일 0시 정각에 본당에서 시작된다.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회개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이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위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11시30분 소등이 되기 전, 본당에 입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송구영신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므로 해외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http://www.seoulchurch.or.kr) 메인화면 - 송구영신예배 생중계)  
2009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감사하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는 송구영신예배가 되도록 기도한다.

# 송년 음악회

## 12월31일 오후10시30분 -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2009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준비한다. 0시에 드리는 송구영신예배에 앞서 진행되는 이 시간은 10시30분에 시작되며 아펜관현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독창(박세영), 테너 독창(유태왕 집사), 트럼펫 독주, 헬시바 중창단, 여성 이중창(최유현, 신모란), 소프라노

독창(권성순), 목자 중창단(박노철 목사 외 12명)이 차례로 준비된다. 또한 반주에는 백송이집사 김양원 선생이 수고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 항존직 은퇴 및 장로안식년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분들을 서울교회 은퇴 장로와 은퇴 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된다.

오늘 저녁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병무 장로, 권혁달, 신종건, 오형철, 이경구, 이재운, 조성엽 집사, 강영순, 김정순, 서영세, 임순자, 최정자 권사 등 모두 12명이다. 또한 2010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갖는 장로는 김대호, 윤봉준 두 분이다.

# 2010년 청지기 수련회

## 2010년 1월 4일(월) ~ 9일(토) 오전 5시 본당

2010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6일간 본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새벽기도회 후 6시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 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된

다. 서울교회 청지기 된 모든 이들(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 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장로, 권사, 집사 등)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구분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05:00~05:30	새벽기도회 - 본당(설교: 부서 담당 교역자)					
05:35~06:20	예배위원 및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노한성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광 목사)	복음의 최전방에 서라 (장석남 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섬기는 지의 사랑과 자세 (한상운 목사)
대상	예배위원 ·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직원	장로, 권사, 집사

# 2010년도 순결서약식

## 1월 3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2010년도 순결서약식이 열린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해당자는 12월 31일(목)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순결서약을 한 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오리엔테이션(예배 및 교육): 12월 31일(목) 오후 8시 101호  
· 학생과 부모 기도회: 12월 31일(목) 오후 9:30 / 101호

# 세계 각처에서 축하전문 도착

이종윤 목사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전문이 세계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도착하고 있다. 세계개혁주의연맹(WRF) 국제총재 Samuel Logan 박사,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국제위원회 국제의장 Doug Birdsell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Peter Lillback 총장, 일본 고베신학대학원 총장 교지 나베타니 박사, 프랑스 엑스엠 프로방스 개혁신학대학원 교수 Paul Wells박사, 프랑스 개혁교단 신학연구위원장 등 많은 국제적 친구들이 이종윤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축전을 보내왔다.

# 주간성경공부 신앙강좌1, 2부 수료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류순임 백명자 이소명 이인숙 홍순복 윤현만 원복순 이응선 김영희 배재송 손병석 이경규 이순례 이영희 원용범 이재봉 이해순 임분도 전정숙 탁경준 홍정란 김복녀 유기찬 유명석 이승민 이승희 홍광숙 이자혁 박창희 이운영 임병창 임선철 최소희 최학인 이광열 강영순 김경옥 김대웅 김희진 박정수 서영세 서정애 유을상 이영희 합은희 윤운식 김숙행 김복순 김태기 순명근 정연택 정정희 김영례 오후근(예바다부) 김명화 김진숙 송옥례 유신 이부자 장명순 조명녀 조상희 한옥순 여현진 윤잔호 이혜선 최무순 이민화 이경희 임명숙 전배호 조정옥 국산옥 강희자 김형택 남정열 송성식 양숙란 정희순 최근자 김동진 김영식 김애순 김희순 김정애 김자경 박성희 오정숙 유인순 위현주 이상은 주화인 최금봉 홍건표 김옥순 김진희 원명희 안선희 광태순 이명순 정미연 최낙준 최태욱 하태현 김경희 김명숙 이규희 이천애 장양일 정복순 최규조 이상호 허숙 - 총 114명

### <신앙강좌1부 수료자>

박정수 김상옥 이덕빈 신종건 김대호 박석현 서귀용 이상호2 왕경래 이태원 최명남 홍일성 이성기2 김은태 전영돈 최종식 탁경준 남상경 김수복 김영정 배정자 오영자 이수자 이순영 이운영 이정자 임규순 정봉금 채덕희 서정숙 박영옥 최진 최길옥 남순덕 이재순 임순자 신동기 강운희 권순단 신계순 심상필 유순인 임명자 홍복산 김자경 김신애 나옥녀 박경희 박영숙 송옥혜 이부자 최무순 최봉애 최화옥 박명석 원명희 유병옥 유춘자 이현숙 정애신 정연택 홍광숙 - 총 62명

### <신앙강좌2부 수료자>

강창숙 고영숙 광숙 권영월 김경희15 김규순 김기욱1 김미경3 김미선2 김미성1 김사라 김상태 김성환5 김수경1 김숙자1 김숙자2 김순덕 김연화 김영주 김옥순 김정숙3 김정제 김지은2 김진희 김찬진 김해수 김혜중 김홍기3 문복순 문옥희 민순구 박광수 박광옥 박상은 박순복 박승재 박시향 박은영1 박인규1 박정란 박정자1 박화실 박희서 박희석 배동금 백명자1 서은석 송행희 신성균 신순복 안병숙 안선광 양호경 오민세 오세백 위명순 유덕자 윤현미 이광배 이미숙 이민숙 이영은 이옥선 이은희4 이종창 이해순 임경희 장호영 전미애 정명숙1 정철환 조민자1 조복자 조순엽 주영도 최미경 최승환 최영희 최정순 최종희 최향숙 표현희 한선현 황병서 - 총 84명

장로직을 은퇴하며

#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정병무 장로 (3교구)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었던 저는 우리 서울교회 설립과 함께 몸 된 제단에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 다. 유교의 근원이 되는 성리학자 선조의 가문에 종손계열 후손 이었기 때문이었지 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44년 전 짜지어주신 아내를 믿음의 딸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되던 때 어떤 계기를 통하여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 다. 그 교회에서 장로장립까지 받고 그 이듬해 원치 않는 일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방향 하는 떠돌이 신앙생활이 시작 되어, 이스라엘의 출애 급 40년 광야생활과 같은 세월을 6년간 지내오다가, 서울교회 설립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와 등록을 한 때가 1991년 10월 30일경 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엇그제 같은데 어언 18년이란 세월을 달 려와 은퇴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제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 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성도에게 는 가장 큰 축복 입니 다. 짧은 한국기독교 역사에, 인 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거듭 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 또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 에서 밀려 떠내려 온 것이라고나 할까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몸 된 서울교회에 장로로 피택 취 임케 하시었으나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

니다. 옛적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임을 고백 합니 다. 주님의 향내 나는 편지가 되지 못했으며 또한 모퉁이돌이 되지도 못하였고, 덕을 세 우는데 분이 되지 못했기에 부끄러움만 앞설 뿐입니 다.

지나온 굽이굽이 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 했지만, 언제나 모자랐고 불충하였으니 못내 아쉬움으로 점 칠 되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 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확고한 이념으로, 하나님 목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는, 세속 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탁류에 떠내려가는 이웃교회 를 건질 것이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계교회를 흔 들어 깨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명의 그 한 몫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 우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 다. “은퇴”란 인간의 유 한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질서 유지의 방편 일 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묵 묵히 따라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혹여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저의 은유하지 못한 처신으로 상처 받은 자 있으시면, 모든 허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 다. 어떠한 공의와 정의도 사랑과 덕이 없다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못된 자아가 낮아질 수 없었음을 고백 합니 다. 서울교회를 사랑하 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굳게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 다.

집사직을 은퇴하며

#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경구 집사 (3교구)

“집사님 연세가 있으시니 쉬엄 쉬엄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 다. 아직은 이정도 쓸 고 닦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라고 불러 주신 것을 대단히 고 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좀 더 있으면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은퇴하면 누가 불러주나요?”

지난 여름 스테반회 회원들과 교회 지하 주차장 물청소 하면서 어느 집사님과 나는 내용의 일부입니 다.

저는 내년 2010년이면 은퇴 집사가 됩니 다. RETIRE는 ‘은퇴하다. 직임에서 물러나다. 퇴직하다’ 입니 다. 이 말에는 체념. 양보의 어감이 있습니다. 정 년이 되면 싫던 좋던 그 직임에서 물러나야합니 다.

지난 12월3일 스테반회 2009년 12월 총회 속회에 서 저는 공로패를 받았습니 다. 그 패에는 이처럼 쓰 여 있습니다. ‘..... 이제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어 아 쉬움을 담아 스테반회 모두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 니 다.’ 무엇을 잃은 것처럼 서운한 느낌이 듭니 다. 그 러나 미련은 없습니 다.

제겐 2010년까지 가르칠 장년 5부 성경반의 어르 신 학생들이 계시고, 아브라함 선교회의 총무로서 봉 사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 다. 이제까 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 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앞장서기를 원합니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교회-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 회-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송년시

# 하얀 마음

안성의 집사(9교구, 시인)

내리는 눈은 그칠 줄 몰랐습니 다.

당신은 그 길을 걸어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당신께 드리지 못했어도 사랑하지 못했어도 당신은 오셨습니다.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났니 다.

언제나 하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당신 새로운 시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 당신의 사랑 있었기에 새날을 맞이 할 수 있음을 압니 다.

이제 당신이 주신 하얀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지 못한 사랑 새로운 약속들 아름답게 장식하렵니 다.



한상은 목사

2009년에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으며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1,2교구의 성도님들, 새롭게 섬기게 되며 그 따뜻함에 반하게 된 신혼가정부회원들, 부족한 성경공부 교안이지만 도와

주시고 격려해주신 장년부 교사님들, 사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부대의 세례식 등 많은 외부행사를 훌륭히 감당해 오신 비전2020 운동본부, 그리고 서울교회 중심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온갖 일들을 잘 감당해 오신 스테반회, 엘리야 선교회, 에스더 전도회 성도님들께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지도와 편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철 목사

무익한 종을 또 다시 한 해 동안 관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2009년도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신 11, 12교구의 모든

일꾼들과 다락방 식구들, 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식당관리부, 차량관리부의 모든 부원들, 초등부와 어린이찬양예배의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아브라함선교회와 사라전도회의 임역원들과 회원들, 순례자 편집위원들과

기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수길 목사

올해의 사자성어는 '먹고 살 걱정'이라는 뜻을 지닌 '구복지루'(口腹之累)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소망스러운 일보다는 어둡고 힘든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된 계절에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부

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께도 임하시기를 원하며, 2010년 새해에는 더욱 더 힘껏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부족한 종이 섬기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장석남 목사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이종운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귀한 목회와 리더십의 진면목을 배우며 감동하며 섬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제게는 너무나 감사해야 할 귀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올해도 영혼구원과 복음확장의 최전선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수많은 전과를

올린 70인 전도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대와 교회의 진정한 숨은 영웅들(Unsung Heroes)이십니다. 천국의 상급이 가장 클 것입니다. 전도위원회의 귀한 섬김 위원들, 그리고 16개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과 임원 여러분의 수고를 교회는 길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47명의 해외선교사님들과 행정으로 돌심양면 지원하는 선교위원회 일군들과, 선교사 후원도고팀 여러분의 수고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유년부의 귀한 어린이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신 유년부의 부장단, 교사님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거의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느라 수고하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전투를 치르듯 최선을 다하시는 멀티미디어단의 귀한 사역자들과 젊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헌상 목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 안의 깊은 감사는, 서울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회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목회를 배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저를 향해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13, 14교구 성도님들, 교회와 민족의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어린이 수요일예배 교사들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요일 이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배우는 학습세례반 학생들과 묵묵히 뒤에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교사들, 영과 진리의 경건

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으로 찬양 드리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와 땀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황광 목사

2009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이종운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와 한 배를 타고 달려온 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먼 거리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9,10교구성도님들, 늘 설레임으로 함께했던 대학부, 늘 웃음과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유지부,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글로리아 찬양단,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새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  
감  
감

사  
사  
사



**박종민 목사**

1월 서울교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되었던 감동과 감사는 일 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평생의 목회의 철학으로 이어질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를 위

해 묵묵히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방울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했던 저의 삶이었지만 사실 뒤돌아보니 받은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 헌신하신 5, 6

교구 식구들, 그리고 중등부 교사들, 물심양면으로 희생, 봉사하신 주부대학 섬김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에게는 감동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문정훈 목사**

2009년 한 해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앙적, 학문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위임목사님을 통해 목사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올 해 새롭게 출발한 15, 16교구 식구들

의 도움으로 성장과 부흥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에 모여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서울교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 2부의 임원, 조장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울교회의 귀한 교육부서, 사랑부의 교사님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선교에 헌신했던 베드로 선교회, 비비 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편 46:5)” 약속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새해, 서울 교회 성도님들 역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문건 목사**

은혜와 감사. 이 두 단어가 2009년도를 되돌아 볼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거목이신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목회와 그 인

격을 배우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3, 4 교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미래의 현존인 대학부와 서울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신 스테반회, 엘리아, 에스더 선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감사하는 2010년도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010년도에는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영 전도사**

복된 성탄과 더불어 2009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길 사람은 비록 노쇠하나 서울교회를 향한 일념의 신앙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살롬권사회 어르신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병약자를 심방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 권사님들의 사랑의 손길,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장로교의 날, 목회자신학세미나 등 대내외적인 많은 행사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신 권사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던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상조부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잠깐이나

마 시간을 나누었던 디아스포라부 회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기독교문화에 속히 적응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전도자로 살아 천국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새가족부 교사 여러분과 같이 서울교회를 찾아오는 새얼굴들을 섬기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해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규현 목사**

2009년을 에바다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10년에는 좀

더 새롭고 발전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다하는 에바다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바다부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통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

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부 가족들과 눈물로 헌신하시는 교사선생님들, 늘 관심과 기도로 지원하시는 위임목사님, 서울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슈아 조 목사**

2009 has been quite a year, full of blessings and challenges. I thank God for all the leaders in our English Ministry who have persevered to

help our members grow and mature. God has brought a number of new foreigners and English-speakers to our church. I pray that we would be a community that would welcome them so we can truly be one family in Christ.

God has also surprised us with an unexpected blessing this year by giving us a new pastoral interm, Joshua Yun 전도사님. In light of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in 2009, we greatly anticipate what He will do in 2010.

**박광일 전도사**

어느덧 2009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늘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종일 뵈임을 고백하게 됩니

다.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디아스포라’ 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아스포라’ 부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다가오는 새해 2010년도에는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디아스포라’ 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디아스포라’ 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헌신의 수고를 해주신 교사선생님들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2010년도 ‘디아스포라’ 부를 섬기게 되실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땀 흘려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9 서울교회 10



장충체육관에 열린 장로교의 날 행사

### <1> 장로교의 날 창설

2009년 12월 14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의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종윤 목사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 칼빈이 태어난 7월 10일에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제반 준비속에 장로교 26개 교단 임원 170여명 등 수 백 명의 성도들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 일대에서 식사교제와 가두행진, 예배와 설교, 강연, 음악회 등을 진행하며 사

상 처음으로 장로교 전 교단이 함께하는 연합과 일치의 시간을 가졌다. 또 7월 17일 우리 교회에서 26개 교단 80여명이 다시 모여 간담회를 갖고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향후 과제를 토의했다.

앞서 6월 18일에는 장로교회의 '양대 산맥' 예상 합동축과 통합축의 대표격 노회인 수도노회(합동축)

와 서울 강남노회(통합축)가 증경노회장 등 각각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양 교단 분열 후 처음으로 연석간담회를 가진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한장총은 장로교 연합사업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이종윤 목사를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추대했다.



7월 10일 장로교의 날

### <2> 요한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개최

칼빈탄생 500주년이 되는 2009년을 맞아 칼빈 관련 국내 3개 신학회는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이종윤 목사)'를 발족하고 6월 21일부터 이틀간 우리 교회 등지에서 기념예배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예배는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이 제시한 사도들의 예배행식을 그대로 재현했고, 이어 기념음악



장신대에서 가진 칼빈 흉상 제막식

회, '칼빈공로자 6명 공로상수여식', 『기독교강요』의 불어판 새 번역본의 기증식, 72개의 칼빈관련 논문이 발표된 심포지엄, 사진전과 기념우표발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교회는 이밖에 칼빈의 명언 '하나님면전에서'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를 예배당 벽면에 라틴어로 된 입체도금 문자를 달았고, 프랑스 조각가에 의뢰해 청동으로 된 칼빈 흉상을 제작, 장신대에 기증했다.



### <3> 박도철 2대 목사 청빙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2대 위임목사로 박도철 목사를 청빙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

박 목사는 65년생으로 94년 미

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Div)과 99년 총신대 대학원(Th.M)을 졸업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와 지구촌교회 등에서 시무했다.

이종윤 목사의 정년에 따라 당회원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지난해부터 흥해자전 등을 통해 후임자를 위해 기도한 끝에 7월1일 특별당회에서 박도철 목사

청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박 목사는 당분간 이종윤 목사와 본 교회 동사(同使)목회를 하면서 1년간의 장신대 청목과정과 총회 목사고시, 공동의회의 가결, 노회인준 절차 등을 거쳐 2대 위임 목사로 공식 부임하게 된다.

### <4> '종합복지타운의 새 모델' 아가페타운 오픈

서울교회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였던 '사랑의 집 건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가페타운'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눈 앞에 나타났다. 10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아가페타운'에서 오픈닝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서울 교회는 종합복지타운 운영의 새 장을 열었다. 수려한 산과 맑은 강을 끼고 자리 잡은 아가페타운은 지난해 4월 부지 매입 후 올 여름 1차공사의 첫 삽을 뜬 지 석 달여 만에 전문미술 위

원들의 손길을 거쳐 예술성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했다. 이후 호신나 장애인 전문대학 등이 본격 이전을 시작했고, 향후 2차공사를 통해 복합 복지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해 성도들은 수 차례 열린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지원했고, 완공이 임박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는 온 성도들의 헌신이 줄을 이었다.



아가페 타운 오픈닝 테이프 커팅

### <5> 로잔 국제지도자대회 개최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리는 로잔 세계 제3차 대회를 앞두고, 한국에서 준비 모임의 '로잔 국제지도자대회'가 열렸다.

세계 60여개국의 복음주의 핵심지도자 250여명이 'IT강국', '영성강국'의 한국을 방문해 6월 8일부터 5일간 서울교회와 장신대 등지에서 행사를 진행했



로잔 지도자들과 함께

다. 이를 위해 한국로잔위원회(의장:이종윤 목사)와 서울교회의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KIMCHI)이 제반 준비를 맡았으며, 더그 버잘 국제 로잔위원회 의장은 한국 교회의 믿음과 비전, 역동성을 보았다는 극찬으로 평가를 대신했다.

# 09 이대 NEWS

## <6> 프랑스에 복음 역수출로 '영적 각성 고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프랑스 교계 지도자들이 현지에서 일으킨 영적 각성은 동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 화제가 됐다. 2008년 제17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한 프랑스 교계 지도자들이 귀국 후 지난 1월 프랑스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개혁신학대학에서는 대학 발간 신학연구지인 『LA REVUE

REFORMEE』誌의 제249호 전체를 김치세미나 강의내용으로 편집하여 프랑스 교회와 불어권 각국에 배포했다.

또 이 대학 폴 웰스 교수는 올해 봄학기부터 캠퍼스에서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파리 신학대학장을 비롯한 프랑스 개혁교회교단 산하 교계지도자들도 김치세미나의 내용으로 토론과 연구를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 <7> 호산나대학 장애인 대학 모범으로 '우뚛'

국내 최초 지적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을 표방하며, 지난 2006년 문을 연 호산나대학이 운영 4년째를 맞으면서 크게 성장된 면모를 드러냈다.

지난 5월 재학생 22명이 전국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6월엔 재학생 21명이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또 장애인 사생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등에서 호산나학교 재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석권했고, 재학생 가운데 조기취업을 하여 첫 월급을 나누며 드린 학생도 나왔다.

아울러 2대 학장으로 박노철 목사, 교목 겸 사감에 구희숙 목사를 청빙하고, 교훈- '믿음 소망 사랑'- 과 교가(가이종윤 작사, 박정선 작곡)도 제정, 발표하였다.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호산나대학 학생들



## <8> 미지립교회 지원 헌신으로 교단 총회 표창 받아

우리교회는 9월21일부터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94회 총회에서, 미지립교회 지원을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시행하여 전국교회에 모범을 인정받

아 표창을 받았다. 총회 표창은 91회,92회 총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서울교회가 또다시 교계의 귀감이 된 사례다.

## <9> 교회 홈페이지 방문자 하루평균 4천명 돌파

무 전담 사역자를 채용하고 한글도메인을 확보하여 인터넷주소창에 '서울교회.kr'만 입력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교말씀 MP3와 다락방 교재

다운로드, e-주보 서비스 개시 등 활용도 제고에 힘쓴 결과 지난 10월 방문자가 13만4천638명, 하루 평균 4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

## <10> 열방 선교사들의 현지교회 개척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이라는 비전을 위해 도교팀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도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올해도 곳곳에서 감사의 소식을 전해왔다.

러시아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가 지난 6월 21일 모스크바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노브고르드에 '노브고르드 장로교회'를 창립하고 첫 예배를 드렸고 인도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가 7월 19일 인도 나가나할리에 교회를 설립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12월 5일 마다가스



2009/11/02 러시아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 - 노브고르드 장로교회

카르집에서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모여 18개 부족 선교를 위한 첫 모임을 열기도 하였고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김용진선교사는 말라위 서울교회를 설립하는 등 열방으로 뻗어나간 선교사들의 복음화장 소식들이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의 아동 선교

이어졌다.

나의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서 행복하단다

이상은 집사(13교구)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부산의 일신병원(호주선 교사가 창설)옆이었고 친할머니가 호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복음화가 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서는 7남매를 공부시키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셨고,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셨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교통 사고로 인해 언니들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집 옆의 충신교회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후 자녀들을 위해 다락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늘 부르시던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공부 잘 시키겠다고 대치동으로 이사 온 후 서울교회를 등록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주일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니 저의 삶은 늘 바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

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조용히 지난 한 해를 묵상해 보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사로 섬기는 초등부 6학년 3반이 년초 7명에서 지금은 2, 3배로 배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신입반 학생이나 잃은 양을 부지런히 심방하고, 학부모나 절대적인 유대를 가지며 친구 전도를 위해 아이들을 격려한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한해 이런 열매가 있었기에 더욱 기쁜 맘으로 성탄절을 기다려 봅니다.

우리반 전도왕 민수, 그리고 한희, 하준이, 병문이, 건이 찬우, 재원이 재은이, 소윤이, 알영이, 상필이 대원이, 기영이, 영빈이 호영이, 유찬이, 유정이 그리고 우리 반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찬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하단다.

교회학교 졸업감사에배

우리교회 모든 교회학교는 2009년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각 부서별로 졸업감사에배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교육부서 회장단

- 중등부 회장: 황신혜 부회장: 최희연
· 고등부 회장: 이태준 부회장: 김가희
· 대학부 회장: 임형빈 부회장: 차신영
· 청년1부 회장: 김영진 부회장: 강민정
· 청년2부 회장: 우령찬 부회장: 김진희

호산나 대학 졸업 앨범 촬영

지난 2009년 12월 15일(화) 아가페타운 호산나대학에서 제1회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앨범 사진촬영이 있었다. 2006년 3월 서울교회재단 호산나대학은 개교 후 4년이라는 시간을 걸어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비록 15명의 인원이지만 호산나대학의 첫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앨범사진촬영에 열심이었다. 이날 졸업식을 위해서 본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청담점'에서는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지원해주었다.

2009 전도상 시상

2009년 한해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울교회에 등록하였다. 70인 전도대에 의한 전도등록 295명 (31.5%),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한 전도등록 239명 (25.5%), 본인 스스로 등록 404명 (43%)으로 총 938명이 등록하였다.

우수 전도팀으로는 박이선 권사 조(137명), 임명숙 집사 조 (60명), 박길희 집사 조(33명), 개인전도 우수자로는 박광일전도사(19명), 유을상집사(15명), 오정수장로(14명)이며, 이 외에 많은 전도대원들과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에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70인 전도대원과 성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시상을 한다. 전도에 수고한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승웅 강윤경 강창숙 고경선 곽미숙 곽선자 곽태수 권영월 김경진 김계성 김광신 김규희 김금제 김대웅 김동진 김동현 김명심 김명욱 김미성 김미숙 김보경 김복순 김상태 김성례 김수진 김수현 김숙자 김애순 김양숙 김연화 김영식 김옥순 김유정 김윤정 김윤희 김은숙 김은순 김은주 김은희 김인실 김장섭 김점숙 김정두 김정순 김정애 김정희 김진 김진희 김창원 김혜경 김흥기 김흥두 김희순 나기

태 남현주 노인숙 노정숙 노진아 박광일 박길자 박길희 박명자 박문자 박미경 박선정 박성미 박수복 박시향 박신자 박여진 박영애 박옥 박이선 박이현 박정선 박정순 박정임 박중녀 박준희 박천희 박희래 배정자 배준길 백경화 백승갑 백운선 변만중 서경애 서명희 서수녀 서순희 서양지 서은영 서중숙 서현정 석상화 성준경 손성실 손재겸 신규철 신금전 신도섭 신명희 신선주 신은숙 안명심 양득춘 엄성웅 여현진 오광환 오미란 오신옥 오은이 오정수 오정숙 오종례 옥희숙 우원환 원복순 원세경 원용규 위성남 위현주 유기룡 유을상 유태서 윤계진 윤선에 윤숙지 윤찬오 윤현미 은기장 이귀숙 이규희 이금순 이미경 이미연 이미영 이민숙 이민희 이상은 이상호 이소연 이수경 이승문 이승자 이양선 이영미 이영선 이옥심 이원희 이유희 이인숙 이자현 이재경 이점숙 이점숙 이정연 이종윤 이지동 이창희 이천애 이현미 이현숙 이현주 인찬희 임명숙 장기숙 장석남 장성자 전인숙 전희미 전행자 정경자 정기자 정미애 정미연 정복순 정애신 정영택 정재욱 정정숙 정중순 조순엽 조영자 조재석 조정옥 조희 주동재 주하인 진경자 최광성 최규초 최금봉 최금중 최낙준 최복희 최성희 최영경 최영란 최죽희 최지연 최준숙 표현희 하승미 한경신 한상준 한지중 한홍연 함정희 허경화 허현숙 홍건표 홍광숙 홍성미 홍성주 홍순복 홍정란 황정아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8일(월) 우리교회 부교역자 전원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31일(목)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주간식당 봉사: 제1스데반(12.27) 제2스데반 (1.3)

■ 금주의 식사: 유명종 집사 이형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유동훈 성도 윤지연 성도 가정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Table with 2 columns: 구분 (구분) and 시간 (시간). Rows include: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지난 해를 감사와 회개로 보내고 새해를 소망과 은혜로 맞이하게 하소서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